김효신의 코펜하겐 여행기

겨울 동화 속으로

26. 검은 용

시청 정원은 아담한 규모였다. '여기에 왜 데리고 나왔지?' 추운 날씨에 어깨를 움츠리고 의아해하는 우리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크리스토퍼 할아버지가 미소를 띄면서 말을 시작했다. "여러분, 왜 겨울 정원에 나오셨는지 궁금하시죠? 정원을 보여드리려는 것이 아니고-물론 정원도 아주 아름답습니다만-여기 옆 계단에 새겨져 있는 조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는 우리가 나온 문 옆을 가리켰다. 육중한 목조 문 아래 열두 계단이 있었고 그 계단 양옆으로는 무섭게 생긴 용 두 마리가 조각되어 있었다. 섬세하게 조각된 용들은 금방이라도 우리를 향해 덤벼들 것처럼 생생한 느낌을 주었다.

"여러분은 북구의 나라라고 하면 저 옛날 용맹했던 바이킹 족들을 먼저 떠 올리시고 그 다음에는 오늘날의 발달된 복지사회를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덴마크에는 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은 대화와 화합의 신화가 있습니다. 대화라고 하면 평화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연상하시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북구의 척박한 땅에는 고대부터 생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싸우다 다같이 망하기보다는 다함께 살아남기 위해 협상의 문화를 발달시켰습니다."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크리스토퍼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우리는 추위도 잊고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사람들은 분쟁이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마을 어귀에 있는 큰 '사랑의 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이 큰 칼을 가지고 옵니다. 칼 찬 장정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이야기의 과정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서로의 증오와 원한이 나무 뿌리 밑으로 흘러 들어가 나무가 썩어 버립니다. 그 나무의 뿌리 밑에는 거대한 용이 살고 있습니다. 나무가 건강할 때는 뿌리가 용의 머리를 누르고 있어 용이 꼼짝할 수 없지만, 사람들의 불화로 인해 뿌리가 썩어 버리면 용이 풀려나와 이 세상에 끔찍한 재앙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세상의 대 파멸이라고 믿었습니다. 재앙을 피하려면 용을 눌러야 하고 그 용을 누르기 위해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대화를 통해 평화와 화합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수 천년 내려 오는 신화와 전통으로 아직도 덴마크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용이 바로 계단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 조각 용인가 보다. 그런데 크리스토퍼 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저기 오른 쪽 건물 벽에 검은 용머리가 보이시죠?" 우리는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건물 이층쯤 되어 보이는 위치에 아치형으로 튀어 나온 둥근 부분이 있었고 그의 말대로 그 끝에 검은 용 머리가 보였다. "사랑의 나무 뿌리 밑에 눌려 있는 용입니다. 저 위치는 시의회 회의실 본당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올라가서 정확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머리만 보이는 검은 용을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이제 안으로 안내하겠다는 크리스토퍼 할아버지를 따라 다시 시청 안으로 향했다.

어미 닭이 병아리를 몰고 가듯 크리스토퍼 할아버지는 앞장서서 걸어가며 줄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는다. "시청 건물을 설계한 마르틴 나이로프는 덴마크 국민 건축가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당대 최고의 건물을 지어 올렸습니다.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덴마크와 코펜하겐의 역사와 문화를 이곳에 오롯이 담아 내겠다는 포부를 가졌죠. 한 건축가의 독특한 비전을 반영한 대표적인 건물이라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대성당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나이로프는 코펜하겐에 그런 상징적인 건축물을 세우고 싶어 한 것입니다." 건물의 한 부분으로 조각해 넣은 북구 신화의 검은 용을 보고 나니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었다. 나이로프는 이 시청 건물에 덴마크의 근원적인 정신이 반영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지스
물이 샜습니까 ?
곰팡이가 있습니까 ?
Lic #227275
Free Consultation, Inspection
213.336.1203
714.420.8288